회원노후대책! 국민연금 + 적립형공제급여 검토해보세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금제도에 한국기술사회 회원도 가입가능

한국기술사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적립형공제상품 및 목돈급여상품에 대해 개별가입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 사업안내

1 가입대상 : 기술사회 회원 (현재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기술사회 회원만 가입가능)

▶ 근거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 자격, 1~4 생략)

5.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 · 직원

2 부담금

- ㅇ 가입한도 : 5만원~100만원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가입 (1구좌 1만원)
- ㅇ 납부방법 : 매월 자동이체로 입금
- ㅇ 납부기간 : 가입시~기술사회 회원 탈퇴시 까지 (가입한 기술사가 퇴직 시 회원탈퇴로 행정처리)
- ㅇ 증 감 좌 : 가입 또는 증감좌 후 3개월 이후부터

3 지급율 : 6% 연복리 (이자소득세 0~4% 저율과세, 종합소득과세 미적용)

- ㅇ 10년 가입시 8%, 20년 가입시 10% 내외의 단리 이율효과

2. 가입절차

기술사회 회원 (한국기술사회 시스템과 연계됨)은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 (개별납부신청)을 하며 은행에 지로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자동납부됩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기술사개별신청 (홈페이지상단 메뉴) → 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 승인 (지로번호, 납부자번호 SMS 전송) → 은행자동납부신청서 (지로자동이체) 제출 → 부담금 자동납부 (매월 10일, 미인출시 15일 재인출) → 공제회 수납마감 → 가입증명서 발송

※ 목돈급여 : 거치형 목돈저축 가능 (지급률 : 5.5%, 가입금액 : 1,000만원~5억원, 15.4% 이자소득세 과세)

※ 콘도 등 휴양시설, 의료기관 할인 등 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3469-7744 FAX : 02-3469-7777 홈페이지 : www.sema.or.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7 본솔빌딩 13층 과학기술인공제회

기술사회 회원,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개별가입 시행

개별회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제제도 가입 가능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기술사들의 회원가입을 위해 개별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9일(월)부터 기술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기술사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회원대상임에도 근무처가 다양하여 신분확인, 부담금납부가 여의치 않아 가입이 어려웠다. 아예 공제회는 한국기술사회와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얻어 개별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사회 회원의 가입을 지원하게 되었다. 가입을 원하는 기술사는 홈페이지(www.sem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신청을 하고 매달 납부금은 지로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회원이 되면 「목돈급여(1천만원 이상 5억원까지, 높은이자), 대여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입대상 : 기술사회 회원** (현재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기술사회 회원만 가입가능)

⊙ **대상사업 : 적립형공제급여사업**

- ○ 회원지급률 : 연복리 6.0% 변동금리(적립형)
- ○ 가입금액 : 5만원~100만원 한도 내 5만원 단위로 가입(3개월 이후 증감좌 가능)
- ○ 부담금 납부방법 : 매월 회원계좌에서 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 **가입절차**

온라인 가입신청 (기술사회원 → 공제회)

공제회 홈페이지 (www.sema.or.kr) → 기술사 개별신청 (홈페이지 상단) → 가입신청서 작성

↓

지로자동이체신청 (회원 → 은행) → 부담금 자동이체 (매월 10일) → 공제회 수납마감 → 가입증명서 발송 (공제회 → 회원)

한국기술사회, 일본 외무성대신(장관) 표창

2010년 7월 13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기술사회」를 표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그 사실을 한국기술사회에 알려왔다. 한 · 일 양 기술사회 협력은 양국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차원의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양국 기술사회가 상호협력 합의각서를 교환하는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각 분야 기술사들 약 300여명이 양국을 교차방문하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표창은 일본 외무성 주한 일본대관 오이케 아쓰유키(尾池 厚之) 경제담당 공사의 건의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9월 7일에 일본대사관에서 표창장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기술사 교육훈련(CPD) 이수기한 연장

□ 근 거 :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입법예고(2010년 7월 22일)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위 근거에 따라 '06.7.26이전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는 '10.7.26까지 기술사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훈련 이수기한을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기술사법」 시행령 안 부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되어 개정 추진중에 있다.

→ 현 법령상 교육의무 이수기한 : 2010년 7월 26일
→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의 이수 기한 : 2011년 7월 26일(1년 연장)

기술사 교육훈련(CPD) 이수현황(2010.7.31 현재)

구 분	교육이수현황			비고
	기본	전문	계	
본회 교육장 교육	6,193	8,512	14,705	379회
기업별 맞춤 교육	3,326	3,294	6,620	59회
지역별 교육	1,861	1,653	3,514	21회
전국기술사 대회	5,079	5,326	10,405	4회
온라인 교육	6,240	5,451	11,691	12회
계	**22,699**	**24,236**	**46,935**	**475회**

▶ 기업별 교육이수 현황

구 분	교육이수현황			비고
	기본	전문	계	
건원	109	109	218	2회
금호건설	47	47	94	1회
대림	0	104	104	2회
도화종합기술공사	292	287	579	1회
동명기술공단	114	112	226	2회
동부건설	46	46	92	1회
두산중공업	38	35	73	1회
삼보기술단	153	153	306	3회
삼성SDS	81	58	139	3회
삼안	136	121	257	2회
선진엔지니어링	39	39	78	1회
유신(주)	273	260	533	5회
청석엔지니어링	54	43	97	1회
한국수력원자력	203	203	406	4회
한국수자원공사	151	151	302	3회
한국전력기술	247	230	477	4회
한국종합기술	138	113	251	3회
한라건설	47	46	93	1회
한미파슨스	130	130	260	3회
한진중공업	56	58	114	1회
현대건설	247	225	472	4회
GS건설	72	70	142	3회
LGCNS	156	157	313	2회
LH공사	329	329	658	2회
SH공사	48	48	96	1회
SK C&C	120	120	240	3회
총 계	**3,326**	**3,294**	**6,620**	**59회**

▶ 지역별 교육이수 현황

구 분	교육이수현황			비고
	기본	전문	계	
대구 · 경북지역 기술사교육	541	506	1,047	5회
대전 · 중부지역 기술사교육	390	291	681	4회
부산지역 기술사교육	779	710	1,489	8회
제주지역 기술사교육	115	110	225	3회
광주 · 전남지역 기술사 교육	36	36	72	1회
총합계	**1,861**	**1,653**	**3,514**	**21회**

▶ 전국기술사대회 교육이수 현황

구 분	교육이수현황			비고
	기본	전문	계	
제1회	734	631	1,365	
제2회	1,008	1,080	2,088	
제3회	1,764	1,901	3,665	
제4회	1,573	1,714	3,287	
총합계	**5,079**	**5,326**	**10,405**	

〈주 1〉 직장별 맞춤형, 지역별 맞춤형, 기술사대회 참여, 온라인 교육, 한국기술사회 종합교육원교육 등 기술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2〉 각 이수현황은 참여인원 누계임.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지원 육성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년도 중점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지원 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청년엔지니어를 발굴하여 미국 엔지니어링 업계에 취업을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습득의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향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엔지니어 육성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육성사업 면접시험 실시〉

- □ 일　　시 : 2010년 7월 31일(토), 10:00~17:00
- □ 대　　상 : 기술사, PE(미국 기술사), FE(미국 기술사보) 등의 자격을 보유한 40세 이하의 남녀 엔지니어
- □ 장　　소 : 본회 종합교육원
- □ 참　　석 : 전봉수 본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김장호 교수, (주)PNI의 신재인 회장 등
- □ 추진계획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취업과 비자 발급은 물론 이들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엔지니어가 글로벌 엔지니어로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

정부부처 기술관련 주요정책 추진현황

교과부 15년 만에 SW기초 · 원천기술 개발 재개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7월 9일〉

– 모바일용 시스템 SW 원천기술에 5년 간 100억원 투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SW 기술력 제고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낙후된 우리나라 SW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진정한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 기초 · 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15년만에 재개한다.

SW 기초 ·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부진 및 이로 인한 SW 산업의 침체는 우수한 인재의 외면으로 대학의 SW 학과 정원이 2000년에 비해 1/4수준으로 주는 등 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이 인도 등 해외의 인력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불러 왔다는 것이 SW 기술계의 평가다.

이에 정부가 '10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에 따라 교과부는 향후 10년간 4,200억원을 투자하여 SW 기초 · 원천기술개발 및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세계 10대 SW 강국에 진입하는 목표로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본 과제는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 들이 클라우드로 구성되고, 이를 모바일 환경에서 수행하는 컴퓨팅 자원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모바일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스마트 폰 등 이동통신 산업 및 SW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설 책임감리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감리 시장퇴출

〈국토해양부 2010년 6월 27일〉

– 2010년 상반기 특별감리검수단 구성 ·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민 · 관 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기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 산하기관을 제외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예방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부처 기술관련 주요정책 추진현황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 및 시행

〈환경부 2010년 7월 8일〉

환경부는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저소음차량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10.7.1일 제정하여 '11.1.1일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제정은 그간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0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제작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운행 철도차량의 소음실태 측정값을 바탕으로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유럽기준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철도소음과 관련하여 철도교통소음관리기준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보다 근본적인 소음저감을 위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제작 · 수입되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였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일반철도 및 지상구간이 많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제정으로, 기관차, 디젤동차 및 도시철도 운행하는 전기동차에 대하여는 정차소음과 주행소음을 정하고, 객차, 화물열차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주행소음을 제정하였다.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21.4억불, 수주는 82.5억불 달성

〈지식경제부 2010년 7월 19일〉

'10년 상반기 수출액은 21.4억불로 전년 동기(10억불) 대비 2배 증가하였고, '09년 신재생에너지 총수출액 20.4억불을 이미 초과하였다. '10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태양광 18억불, 풍력 3.45억불로 조사되었다. 태양광은 '09년도 상반기 8.8억불에서 '10년도 상반기 18억불로 105% 증가하였다. 풍력은 '09년도 상반기 2.6억불에서 '10년도 상반기 3.45억불로 37% 증가하였다. 수출호조요인은 태양광으로는 독일 등 유럽시장의 태양광 발전소 경쟁적 설치,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내수시장 확대정책 및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확충으로 Value-chain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풍력부품 수요 증대 및 기술개발이 완료된 국산풍력발전기의 해외 진출 확대이다. 수주 현황 조사 결과 '10년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수주액은 82.5억불로 대형 신재생단지 수주에 힘입어 전년 동기(12억불) 대비 6.8배 증가하였고, 금년 하반기 수주를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도 25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별로는 태양광 16.5억불, 풍력 65.9억불로, 국내 조선 · 중공업회사의 풍력분야 신규 참여 및 발전기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풍력분야 해외 수주가 두드러진다. 태양광은 '09년 상반기 8.7억불에서 10년도 상반기 90% 증가하였다.

자료제공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GTB)

보다 낮은 태양광발전소 건설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

분산 아키텍처(Distributed architecture) 기술은 인버터 기술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버터 기술의 도약은 보다 낮은 태양광발전소 건립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는 북미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에서 태양에너지 시장은 매우 커져있는 상태이다. 만약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면,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버터 기술은 항상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모듈 설치의 순차적인 특성은 "크리스마스 등 효과(Christmas light effect)"에서 기인한 것이다. 모듈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들(먼지, 잔해, 그늘)이 일렬로 서 있는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등 효과라고 한다. 분산된 인버터 아키텍처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MPPT 기능은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선에디슨(SunEdison)은 최근 그들의 최초 마이크로 인버터 기반의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가 최초에 설계되어진 공정에 비해 약 20% 이상이 증가되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1990년대에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효율적인 제약 때문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지는 않았다.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 모다 많은 관심이 BOS, 노동비용, 그리고 인버터에 가고 있으며, 그 결과 분산된 인버터 기술이 새로운 관심을 받으며 발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출처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

스마트폰 시장 발전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 해 4분기 강력한 성장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금년도 1분기에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IT 시장조사기관인 ABI Research社의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중 스마트폰 출하량은 5천 5백만 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 수치는 2009년 4분기에 비해 약 1백만 대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러나 판매 주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작년도 전 분기에 비해 1분기에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마련이라고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모건(Michael Morgan)은 말했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는 전 해 마지막 분기보다 매우 낮은 출하량을 보이기 마련이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그는 주장했다.

ABI Research社는 "스마트폰 분기별 시장 동향 및 전망(Smartphone Quarterly Tracking and Forecast)"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분기별, 연도별 스마트폰 시장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 세계, 지역별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 ASPs, 벤더 시장 점유율, 수익 및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同社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부분은 이전에 고가의 첨단 기술을 내장한 스마트폰이 보다 저렴한 모델로 이용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고 다양한 판매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건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명절 등의 시즌 등에 의해 활황세를 보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출처 http://www.abiresearch.com

지구촌과학기술뉴스

자료제공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GTB)

물에서 3D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젝션 기술

카네기 멜런대학의 로봇대학에서 개발한 새로운 프로젝션 기술, AquaLux 3D는 빛을 각각의 물방울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문자, 비디오 및 다른 움직이는 영상들이 떨어지는 물의 다중 레이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기존의 물의 표면에서 영상을 투영하는 기술과는 다르게, AquaLux 3D는 정확하게 제어된 물방울의 다중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서, 물에서 3D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로봇학과의 Srinivasa Narasimhan교수가 말했다. 안개구름과 물방울을 결합으로서, 테마파크, 전시회 및 인터랙티브게임을 위한 3D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수안경이 필요없다고 Narasimhan이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초당 60회로 물방울을 만든다. 사람의 눈은 초당 10회 정도의 비율이면 각 물방울의 열을 반복적으로 인식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초당 물방울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증가시킨 것이다.

연구자들은 비디오 영상, 텍스트 및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의 시뮬레이션, 단색의 시트 교체 및 테트리스 비디오게임의 다차원적인 모습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물방울을 사용했다.

'AquaLux 3D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이다. 사람들은 물방울을 만질 수 있고, 영상의 모습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인터랙티브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창조적인 사람이 이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출처 http://www.theengineer.co.uk

8.0의 강진을 견뎌낸 30m 콘크리트 교량

8번의 개별적으로 모사된 연속적인 지진 모의 실험 후에도 34미터 길이에 20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교량 모델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지진을 견뎌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교량 모델은 네바다 대학의 실험실에 건설되었으며 여기서 모사된 지진은 1994년에 켈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강도 6.9의 노스리지 지진을 고려하여 생성시켰다. 노스리지 지진은 3번에 걸쳐 강력한 지진을 발생시킨바 있다.

"우리는 교량의 처짐이 8인치 정도될 때 파괴 되었다고 평가했었다. 8인치의 처짐은 상당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실험으로부터 우리는 지지 기둥에서 10인치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변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은 여전히 버티고 서있었으며 심지어 상당한 내부 응력을 더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교량은 실제 지진을 모사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흔들리게 된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기록된 지진데이타를 활용하여 노스리지 지진을 모사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세 개의 거대한 유압식 진동대의 움직임이 시뮬레이션 된다. 거대한 유압식 진동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네바다 대학의 연구팀은 미래 교량의 혁신적인 내진 설계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어도 교량 자체가 보호되고 손상을 방지하하며 심지어 매우 강력한 지진에서도 교량이 페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소재를 대상으로 실험해오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내진 설계와 내진을 위한 요소들이 향후 교량과 오버패스 건설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사이디 교수는 말한다.

▶▶▶정보출처 http://www.sciencedaily.com